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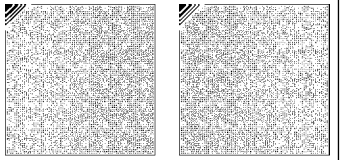


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혁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장협

새보람

Saeboram

소리로 읽는 새보람



2 신년사

2016년, 지장협 역사의
새로운 원년으로!



12 특집 I

지장협 신년인사회 화보



13 특집 II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 제도



21 시선8616

지장협 초대 고문
양경자 전 국회의원



지장협, 2016년 신년인사회 개최

장애인당사자주의 통한 사회변혁 다짐



김광환 중앙회장과 임원, 내빈들이 케이크 커팅을 하며 장애인 복지발전을 기원했다.

2016년 새해를 맞아 전국 지체장애인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장애인 인권 향상과 장애인 복지 발전을 기원했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가 1월 21일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개최한 '2016년 신년인사회 및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에 4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실천 계획을 설계했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은 "장애인 당사자주의와 장애인정치세력화를 구현해 지장협 30년 역사의 찬란한 꽃을 피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국 지체장애인 지도자들이 합심해 지장협 역사의 새

로운 원년으로 만들자"고 전했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지장협은 이 자리에서 지난 30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본 후 기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기념사업으로는 토론회, 30년사 및 인물사 발간, 기념식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김광환 중앙회장은 전국 지체장애인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협회의 역사를 바로 세우며 발전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명사특강에 나선 새누리당 황우여 국회의원은 "장애인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하다"며 "전국의

지장협 지도자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간다는 사명감을 갖고 장애인복지 발전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광역시 유정복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장협이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가 주관하며 인천광역시가 후원한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박남춘·윤관석·최원식 국회의원 등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장애계, 합심해 총선 대응



장애계 신년인사회에서 장애계 및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이 주최한 '2016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이하 신년인사회)'가 1월 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새해를 맞아 장애계가 힘찬 포부를 밝히며 발전을 다짐한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장애인단체장 등 장애계 인사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장총련 안진환 상임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진행된 사회보장장비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복지 축소를 가져왔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복지 축소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들이 정치 세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장애계 모두 힘을 합쳐 총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장애계 단체의 협력을 부탁했다.

이어서 장총 이병돈 상임대표도 "총선에 맞춰 장애인들의 대표권 확보를 위한 정책 공약을 개발하겠다"며 "그 간의 투쟁과 희생으로 이룬 복지성과를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올해 '장애인정책미래위원회'를 발족하고,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맞춤형 지원체계를 위한 단계적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신년사

2016년 새해, 지장협 역사의 새로운 원년으로!



겨울이 봄에 자리를 내주듯이, 묵은해가 새해의 기운에 작별을 고하고 어느덧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 丙申年을 맞아 존경하는 장애인 동지와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국 임직원 및 관계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협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리 협회는 1980년대, 이 땅에 장애인복지가 척박하던 시절부터 장애인당사자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명실상부 국내 최대의 조직을 만들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를 선도해 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올 한 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기념하고, 우리 지장협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새로이 밝혀야 합니다. ‘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혁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장협’이라는 미션을 가슴에 품고, 사회통합에 앞장서는 실천을 결의합니다.

그 첫 발걸음은 장애인 인권보장 활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국제적으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s)에 장애 관련 의제가 포함되면서 전 세계가 장애 문제 해결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계기가 되었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찬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장애인시설 거주인 사망사건이나 폭행 등의 인권유린 사례가 알려지며 분노했고, 장애학생 학교폭력 사건으로 장애인 인권 확보의 절실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협회는 연초부터 협회 산하 중앙장애인인권위원회를 결성하고, 전국 17개 시·도협회장, 230개 시·군·구지회장 등 전국의 지체장애인 지도자들과 함께 지역별 장애인인권위원회를 바탕으로 장애인 인권 향상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전국 장애인인권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4회에 걸쳐 권역별 인권교육을 개최해 내실을 다졌고, 인권위원들

이 각 지역에서 상담과 인식개선 활동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국의 인권위원들이 왕성한 활동을 통해 우리 당사자들의 힘으로 장애인 인권을 온전하게 확보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올해는 우리 협회가 또 하나의 기치로 내걸었던 정치세력화를 꽃 피울 기회를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장애인들의 욕구와 권익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옹호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의 대표를 뽑아야 합니다.

산적해 있는 장애인 관련 현안들의 해결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것이 바로 장애인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국내 최대의 회원조직을 가진 우리 지장협이 단합된 목소리로 우리들의 대표를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과거 역대의 어느 국회보다 장애인 문제에 전문성과 친화력을 가진 인물이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16년도 한 해의 시작점에 선 우리 협회가 느슨해진 거문고의 줄을 바껴 맨다는 해경정장(解絃更張)의 마음으로 장애인복지를 위해 일할 것을 다 함께 다짐합니다. ‘장애인당사자주의’와 ‘장애인정치세력화’를 구현하여 지장협 30년 역사의 찬란한 꽃을 피우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원숭이의 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가 원숭이의 지혜로움과 화합의 장기를 발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6. 1. 1.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 김광환 배상

장애인 관련 법 개정안 다수 통과 장애인연금 정보 제공 · 피난설비 의무화 등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다수의 장애인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 장애인연금 정보 상세 제공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지

급대상과 연금액, 신청방법 등을 제공해야 한다. 연금 대상자가 정보 부족으로 수급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정보부족으로 인해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소방시설 장애인 피난설비 의무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하는 근거가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애인이

나 노인, 임산부 등 취약자를 고려한 경보설비와 피난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구체적인 시설 규정은 법안의 시행 시점에 맞춰 향후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다.

■ 장애인기업 생산품 구매 비율 명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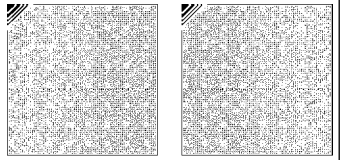
장애인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과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 시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해 수립하고 구매계획 이상으로 장애인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한국디자인진흥원에는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했다.

대표발의한 유성엽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기업 제품의 판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장애인 재난관리 전담부서 필요하다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위한 기초연구 결과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연구를 시행했다. 이 연구를 통해 재난관리체계의 개념, 특성, 패러다임을 살펴보는 한편 국내·외 재난관리체계를 검토했다. 또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활동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해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를 발표했다.

장애인 재난 대처능력 2배 취약

장애인은 재난 발생 시 신체적인 한계로 인해 대응이 늦어지거나 불가능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사고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재난대응 욕구가 높은 집단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국립재활원이 실시한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개발·보급(2013)’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의 재난 대처 능력은 비장애인보다 2배 이상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재난관리 인식 높은 선진국

미국은 연방재난관리청에 ‘장애통합조정실’을 설치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장애인에게 특별한 재난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편이다. 또한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각 지역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GIS(지리정보시스템) 맵핑을 통해 사전

에 확인하고 현장 대응자에게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복구 이후 가능한 원상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계획까지 수립한다.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와 함께 재난대응에 시민단체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다. 특히 독일 근로자 자선단체(ASB)는 재난 발생 시 노인 및 장애인, 아동 등 보호를 책임지며, 이들을 위한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다.

일본은 ‘재해 시 요원호자의 피난지원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재택 재해약자 대책, 사회복지시설 등의 재해 약자 대책, 외국인의 안전 확보 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우리나라도 ‘재해 시 재난약자의 피난지원 가이드라인’이나 ‘재해약자 대응 방재 매뉴얼’ 보급 등 다양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재난 대응 필요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 연구에서 장애포괄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방안으로 장애인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체계 근거 마련과 장애인 재난관리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명시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재난·안전대책이 포

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건축법」상 안전기준이 아동 관련 시설과 노인 관련 시설에만 적용돼 장애인 관련 시설(장애인거주시설 등)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장애인 관련 시설에도 안전기준이 적용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과정에서의 특별한 지원을 계획하고 관리할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난위기 상황 시 민첩한 대응을 위해 국민안전처 혹은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재난관리부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장협-중국 감속성장장애인연합회 교류

장애인편의시설, 보조기구 등 상호 국제 협력 다짐



지장협과 중국 감속성장장애인연합회가 상호 교류를 다짐했다.

감속성장장애인연합회 이사장 등 5명이 참석했다.

김광환 중앙회장과 중국 감속성장장애인연합회 측은 각각 단체 소개를 한 후 한국과 중국의 장애인복지 현황을 공유했다.

김광환 중앙회장은 특히 지장협의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를 소개하며 한국의 장애인 이동권 확보 활동에 대해 이야기했고, 감속성장장애인연합회는 감속성장장애인보조기구지원중심을 통해 이동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그 밖에도 장애인의 사회참여 방법과 권익보호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며 상호 교류의 의지를 다졌다.

지난 1월 7일 중국 감속성장장애인연합회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를 방문해 국제협력을 다짐했다.

감속성장장애인연합회는 중국 서북쪽에 위치한 장애인단체로 지역 장애인복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연합회 방문단으로는 감속성장장애인연합회의 장루지 부이사장을 비롯해 쩡잔쿠이 감속성장장애인재활처장, 리샤오핑

서울어린이대공원, 무장애통합놀이터 개장

장애·비장애 아동 함께 이용하는 참여 디자인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이용하는 무장애통합놀이터 ‘꿈틀꿈틀 놀이터’가 1월 13일 능동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개장했다.

2800㎡ 규모의 무장애통합놀이터는 서울시설공단과 대응계약, 아름다운재단,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등이 협력해 조성한 것으로 어린이대공원 내 오

래된 놀이터를 리모델링해 문을 열었다.

‘무장애’는 장애인의 온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장벽 제거를 의미한다. 턱이 높아서, 계단이 많아서, 탑승공간이 좁아서 놀이터에 접근이 어려웠던 장애아동이 미끄럼틀, 그네, 회전놀이대 같은 놀이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회전 놀이시설은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다. 등받이와 안전벨트가 있는 그네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증장애아동도 이용할 수 있고, 바구니 모양의 그네에선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여럿이 함께 탈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무장애통합놀이터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



장애아동이 무장애통합놀이터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도록 대응계약,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등과 민관협업으

로 놀이터 이용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 고용지원 강화 예고

정부는 1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UN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방안’, ‘2016년 발달장애인 서비스 추진계획’, ‘스마트 수화방송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그간 정부는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참여 등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편의 증진’을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2017년까지 현행 장애등급제를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

구에 맞게 개편하고,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인상, 야간순회 방문서비스 제공,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와 권익옹호기관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방안’을 심의·확정하고 일반 학교의 통합교육 확대, 장애인 강제노역 방지를 위한 순회점검 등을 포함해 장애인의 소득, 고용, 인권, 정보접근성 등 각 분야에 걸친 선진국 수준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로 했다.

이어서 ‘2016년 발달장애인 서비스 추진계획’을 논의·확정

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올해부터 발달장애인의 교육, 치료, 재활을 위해 권역별로 지원센터(17개소)를 신설하고, 장애인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등 사법절차상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수화방송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수화방송을 2018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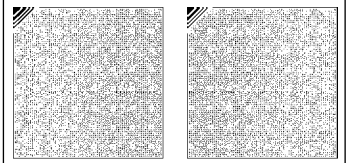
현재까지는 수화방송의 화면

크기가 너무 작아(통상 TV 화면의 1/16 크기) 청각장애인이 수화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 제기와 더불어 비장애인은 방송화면을 가려 시청 흐름을 방해한다는 불만이 있었다.

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 시청자가 수화영상을 제거하거나 크기와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영상은 방송망으로, 수화영상은 별도의 인터넷망으로 송신하는 기술을 상용화해 2017년까지 시범방송을 시행한다.

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총리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소리로 읽는 새보람



중점을 뒤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정책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으로 집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수요자인 장애인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각 부처에 요청했다.

한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신규 위원으로 △김경미 송실대 교수 △노익상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박승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이병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이상묵 서울대 교수(연임) △이상철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회장(연임) △허혜숙 내일을 여는멋진여성 회장 △황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장 등 8명이 위촉됐다.

UD인증제 제도화 방안 모색

유니버설디자인 대상 ‘시각장애인 놀이터’ 수상



UD인증제 도입을 위한 지표 연구·개발 결과보고 및 토론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양원태)이 유니버설디자인(이하 UD) 인증제 도입을 위한 지표연구·개발 결과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디자인이즈 이호창 대표는 먼저 UD인증지표 개발 및 사용자평가 결과보고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신제품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제품 적응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회적 약자가 안전사고를 겪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잠재돼 있다”며 “사용자의 신체적·정서적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제품의 유니버설 디자인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개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대표의 발표에 의하면 UD인증지표는 UD 7원칙과 사용자의 사용 흐름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사용자의 사용 환경 중 어떤 요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구성해 사용자가 제품을 받는 순간부터 첫 사용과 정리까지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평가했다.

인증지표에 사용된 UD 7원칙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서 발표한 UD 7원칙에 기반을 뒀다. 내용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손에 넣을 수 있을 것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을 것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용이하게 알 수 있을 것 ▲실수해도 큰 문

제가 되지 않을 것 ▲작은 노력으로 쉽게, 즐겁게 사용할 수 있을 것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이 있을 것 등이다.

이 대표의 발표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등 특수한 기능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었다. ‘포장 상자에 손잡이가 없어서 물건 들기가 쉽지 않았다’, ‘제품의 주의사항이 눈에 띄지 않는다’ 등 사소한 기능에 불편함을 느꼈다.

이에 “우리가 원하는 UD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밀함”이라며 “인증제도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점을 자세히 알 수 있고, 제도를 기반으로 좀 더 실용적인 디자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에 이어서 유니버설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대상은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놀이터’(송승환)가 수상했다. 이 작품은 시각장애아동이 쉽고 안전하게 촉각·청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조합한 것이 특징이다.

특별상은 손이 불편한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생리대를 디자인한 ‘Pulling Pad’(김지선)가 받았다. 또 최우수상은 ‘SKY GATE’(이도율), ‘Cardirection’(홍석민), ‘스마트폰 점자커버’(김수희, 채성기)가 각각 수상했다.

복지부, 장애인 활동지원 우수기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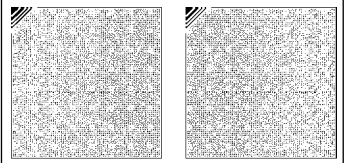
총 226곳 장애활동지원기관 대상 평가 실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전국 750여 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서비스 품질 평가를 통해 최우수기관 21곳을 선정했다고 12월 28일 밝혔다.

평가결과는 보건복지부, 시·군·구 및 활동지원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21곳

의 평가 최우수기관에게 표창장과 인증마크를 수여하는 시상식을 개최해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을 독려하며, 소정의 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수화 공용언어로 인정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축하연 열려

수화가 공용 언어로 인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4일 한국 수어를 공용어로 인정하는 내용의 ‘한국수화언어법’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 수화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게 되며 공공기관의 안내판 등에 수어도 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아인협회는 1월 14일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신년인사회 및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축하연을 진행하며 한국수화언어법 통과를 기념했다.

이번 행사에는 200여 명의 내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축하연에서 내빈들이 떡 케이크를 커팅하고 있다. ©한국농아인협회

빈이 참석해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을 축하하며 장애인 단체들의

노력과 열정에 박수를 보냈다. 한국농아인협회 이대섭 회장

은 “지금 우리는 한국 수어가 발전하기 위한 시작점에 다 같이

서 있다”며 “앞으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수어 교원제도를 도입하고 전문 수어강사 양성교육, 수어전문교육원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 수어가 통합교육에서 배제됐던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도 한국 수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국 수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이 없었다면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못했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전했다.

장애부모 자녀에게 장학금 수여

장고협,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자녀 20명 선정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조향현, 이하 장고협)가 12월 3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부모 자녀 20명에게 각각 5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장고협은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중·고등학교의 학생

을 대상으로 장학금 대상자를 추천받았고, 이중 심사를 통해 20명을 선정했다.

이날 장고협 조향현 회장은 “수상한 학생들에게 축하와 응원의 말을 전하며, 졸업 후 사회인이 되었을 때 직장에서 장애인

차별이 없도록 장애인식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고협은 이날 장학금 수여식과 함께 ‘2015 고용노동행정 유공자 표창 전수식’도 진행했다.



장고협 조향현 회장과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척수장애인 70% 자살 충동 느껴

2015 척수장애인 욕구 및 실태조사 결과

척수장애인 10명 중 7명은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중 절반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회장 구근회)는 1월 14일 전국 척수장애인 600명을 조사해 발표한 ‘2015 척수장애인 욕구 및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68.8%가 척수가 손상된 뒤 자살 충동을 느꼈으며, 32%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자살 충동을 느낀 원인은 삶의 의욕 상실(50.4%·복수 응답)과 신체적 장애(40.4%)가 대부분이었다. 우울 등 정신과적 증상(18.0%)과 경제적 문제(12.2%),

대인 관계(10.5%)가 뒤를 이었다.

또 조사 결과 척수장애인의 73%는 척수 손상 뒤 무직이 됐다고 답했다.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는 ‘장애로 인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가 51.4%에 해당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제도 때문’과 ‘일할 기회가 없어서’가 각각 14.2%, 8.6%였다.

결혼 생활과 관련해서는 이혼한 척수장애인의 경우 75.4%가 척수손상 후 이혼했고, 이중 78.6%가 이혼이 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답했다. 미혼인 척수장애

인의 36.9%는 장애가 있어서 결혼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으며 다음으로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23.8%),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23.8%), 경제적으로 어려워서(9.3)가 뒤를 이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이번 조사를 두고 “대부분의 척수장애인은 교통사고, 산업재해, 낙상 등으로 척수 손상을 입은 중증장애인으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재활과 사회복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사가 척수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애인 우선 예약 객실’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누리집 통해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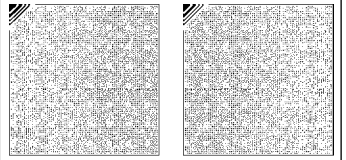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장애인 우선 예약 객실’을 기존 14개 자연휴양림에서 21개 자연휴양림으로 올해부터 확대해 운영한다.

휴양림 관리소는 지난 2008년부터 일반인보다 우선해 예약할 수 있도록 유명산자연휴양림 등 14개 휴양림 20객실을 장애인 우선 예약 객실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내년부터 용화산자연휴양림 등 7

개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우선 예약 객실 10객실이 추가돼 모두 21개 자연휴양림에 30객실로 늘어나게 된다.

장애인 우선 예약 객실 신청은 국립자연휴양림 누리집(www.huyang.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 민주유공(부상)자다.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고객은 객실과 상관없이 등급에 따라 비수기 주 중에 한해 최대 50%의 객실 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장애인 시설 설립 반대 행위, 헌법 위배

인권위, “관련 시설이 지역의 안전을 위협한 적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장애인 시설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민들의 행위는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인권위는 1월 12일 “서울시 동대문구 지역의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서 “개개인의 안전하고 평

온한 주거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면서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특수학교가 지역주민의 평온하게 살 권리를 침해하거나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저해한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

19조에 따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의 참여권이 강조되는 추세에서 장애인 특수학교와 시설의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배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해 11월 개관을 목표로 서울

소재 한 중학교의 유휴시설을 발달장애학생의 직업능력과 체험을 위한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지연돼왔다.

이에 인권위는 지역주민의 주요 반대 사유인 ‘발달장애인의 위험성’과 관련해 발달장애인은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능력이 현

저히 떨어져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폭력, 학대, 착취 등 괴롭힘의 대상이 돼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과 의사 표현이 서투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나 시설의 설립은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지장협-열린사이버대학교 MOU

장애인 교육환경 조성 및 역량강화 위해 맞손



지장협과 열린사이버대학교가 장애인 역량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중앙회장 김광환, 이하 지장협)는 열린사이버대학교(총장 장일홍)와 장애인 역량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12월 23일 지장협 사무실에서

장애인 엘리베이터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 전시 공간도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에서 빠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월 19일 밝혔다.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 면적이 용적률 산정에도 제외되면서 건축 가능 면적이 용적률 1% 내외로 증가하는 효과를 보게 됐다.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법적 기준 충족 범위 내에서만 설치하는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진행한 협약식에서 김광환 중앙회장과 장일홍 총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상호 서명·교환했다.

앞으로 지장협과 열린사이버대학교는 공동 학술연구 및 정보교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또 열린사이버대학교는 지장협 추천자에 대

한 장학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김광환 중앙회장은 “열린사이버대학교와 장애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가 시작돼 기쁘다”며 “앞으로 장애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해나갈 자”고 말했다.

연말정산 시 장애인증명서 지혜롭게 받기

납세자연맹, 절세효과 및 발급방법 설명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태)은 1월 20일 장애인의 연말정산 시 필요한 ‘장애인증명서 지혜롭게 받는 10가지 방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증명서 서식의 ‘장애(예상)기간’란에 기재된 최초 중증질환 진단 시점이 중요하다. 이 날짜가 속한 해가 최고 5년 이내(2010~2014)라면 전액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환급혜택이 크다.

장애인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해당 부양가족(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 이외에도 장애인 소득공제(200만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세법상 장애인’인 중증환자로 인정받으면 일반 의료비의 공제한도(700만원)를 적용받지 않고 총 급여액의 3%를 초과

하는 의료비 전체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어 절세효과가 크다.

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진료비와 치료비는 물론 요양비와 약값, 장애인보장구 등도 700만원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은 “2010~2014년에 놓친 소득공제도 납세자연맹의 ‘과거 놓친 공제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소급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5년 전 중증질환 진단을 받았지만,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를 몰라 오늘 알았다면, 과거의 진단 사실을 의사로부터 확인받아 지난 5년치의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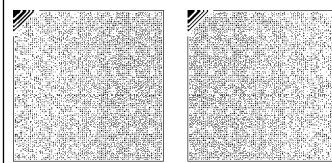
장애(예상)기간 1년이 늘어날 때의 절세혜택은 매우 크다. 말기 암일 경우, ‘장애인증명서’의

장애(예상)기간을 ‘영구’로도 받을 수 있고, ‘영구’에 표시돼 있으면 향후 다시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매년 복사해서 연말정산 때마다 제출하면 된다.

장애(예상)기간이 ‘2015~2018년’이라면 4년간의 증명서 복사본을 연말정산 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병원에서 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모를 경우, 납세자연맹이 병원장 앞으로 보내는 공문을 출력해 병원에 제출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납세자연맹의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도 볼 수 있다.



성악가 조수미, ‘휠체어 그네’ 선물

경남지장협 “놀이를 통한 장애아동의 삶의 질 향상 중요”

성악가 조수미 씨는 12월 23일 경남도청에서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덕선, 이하 경남지장협) 회원 등 2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휠체어 그네 2대(3천만원 상당)를 기증했다.

이번에 조수미 씨가 기증한 휠체어 그네는 장애 어린이가 휠체어를 탄 채 혼자서 그네를 탈 수 있는 놀이기구다.

2년 전 호주에서 휠체어 그네를 처음 접한 그녀는 아일랜드 전문회사를 통해 지난해 국내에

최초로 소개하면서 푸르메재단에 2대를 기증한 바 있다. 그동안 이 놀이기구는 국내 생산업체가 없어 고가로 수입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경남지장협에 기증한 그네는 국내 업체인 (주)보이스코리아가 개발해 생산한 국내 제품이다.

세계무대 데뷔 30주년을 앞둔 조수미 씨는 모친의 고향인 창원에 좋은 일을 하고자 고민하던 중 경남지장협을 알게 됐고, 어릴 적 단짝이었던 장애인 친구를

떠올리며 기증을 결심했다.

조 씨는 “장애 어린이들이 그네를 타는 모습을 보면 나도 행복해진다”며 “앞으로 더 많은 휠체어 그네 기부가 이어지도록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김덕선 협회장은 “놀이를 통한 장애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바라는 조수미 씨의 휠체어 그네 후원에 깊이 감동했다”며 “많은 장애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겠다”고 전했다.



성악가 조수미 씨가 경남지장협을 통해 장애아동에게 휠체어 그네를 선물했다.

포항시지회,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

다양한 직업교육 통한 취업기회 확대



포항시지회가 12월 28일 바리스타 교육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지회장 이경목) 산하 장애인취업지원센터에서는 구직 등록 후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달간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2월 28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오는 1월 28일까지 주3일 총 14회에 걸쳐 진

행했다.

교육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은 ▲커피의 역사 ▲품종 ▲가공 ▲로스팅 등 커피학개론 전반과 ▲위생 및 청결 서비스 ▲포스조작 및 주문받기 ▲고객 응대 ▲에스프레소 추출 테스트 및 피드백 등 다양한 현장실습을 병행했다.

특히 장애인취업지원센터에서는 더욱 전문화된 커리큘럼 및 진행을 위해 바리스타 양성 전문기관인 히즈빈스(향기내는사람들)에 교육을 위탁해 진행했다.

포항시장장애인취업지원센터 이수정 대리는 “다양한 직업교육을 통해 장애인들도 사회참여와 자기계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업 및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통영시지회 선상 해맞이

18명 함께 배 위에서 소원 빌어



통영시지회가 1월 1일 선상 해맞이를 진행했다.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 통영시지회(지회장 한창석, 이하 통영시지회)는 지역 장애인과 함께 선상에서 해맞이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덕선 경상남도지체장애인협회장을 비롯해 18명이 참가했다.

장애인들은 오전 7시경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삼덕항을 출발해 7시 35분경 산양읍 연곡리 외부지도 주변 수평선 사이로 떠오르는 2016년의 해를 맞이했다.

통영시지회에 따르면 이번 해맞이는 경치 좋은 곳에서 새해 해맞이를 해 보는 게 소원이라는 장애인 할머니의 작은 바람에서 기획됐다. 해맞이에 참가한 할머니는 해가 떠오르는 내내 눈을 떼

지 못했다. 또 일흔을 넘긴 한 장애인 할아버지는 “칠십 평생 처음 해보는 해맞이”라며 “새해에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겠다”고 즐거워했다.

한창석 지회장은 “장애인들은 높은 산 위에서 해맞이를 할 수도 없고, 인파가 많은 해변에서 기다리다간 넘어져 다칠 수도 있기에 선상 해맞이를 기획했다”고 밝히며 “장애인들이 모여 찬란한 태양 속에 희망을 채우는 오늘 해맞이가 감격스럽다”고 전했다.

또 김덕선 협회장은 “새해엔 모든 소망이루며 건강하고 해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생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천시지회 연말 사랑나눔 실천

경기 침체에도 따뜻한 후원 이어져



김천시지회가 후원물품을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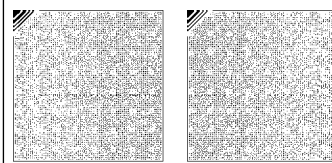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지회장 박선하)는 지난 12월 23일 지회 사무실에서 박

선하 지회장, 대산농협 지용식 전무, 지회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연말 사랑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사랑 나눔에는 황금동교회에서 쌀 15포, 푸른농산(대표 전대모)에서 쌀 10포, 대산농협 직원 일동이 감자 100상자 등 각 교회와 기업체에서 지원한 물품과 후원금에서 구입한 쌀 10포, 라면 20상자 등을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각각 전달했다.

박선하 지회장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연말을 맞아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후원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어려운 장애인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도록 골고루 나누겠다”고 말했다.



전북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실무자 워크숍

14개 시·군 종사자 60여 명 역량강화 도모

지체장애인의 편의시설전북지원센터(센터장 김형곤, 이하 전북센터)가 14개 시·군 센터장 및 실무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16~17일 1박2일간 전주 풍남 관광호텔에서 '2015년 하반기 장애인 편의시설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전북센터 김형

곤 센터장이 '편의시설 실무자의 자질과 역량강화'로 특강을 시작했다.

김형곤 센터장은 "2016년에는 센터 운영이 수탁사업으로 전환돼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한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새해에는 전북센터 도약의 계기로 삼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전주 비전대학교 사회 복지경영과 하태용 교수가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와 함께 2015년 한 해 전북센터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3인(김은경 사원, 김상옥 팀장, 리더견축사 대표 김용민)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전북센터가 2015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서대문구지회-명지대 총학생회 MOU

편의시설 점검 등 장애학생 권리증진 협력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구지회(지회장 황재연, 이하 서대문구지회)는 명지대학교 총학생회와 장애학생 권리증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명지대학교 총학생회 측이 장애학생의 이동권 확보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서대문구지회에 교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자문을 구하면서 이뤄졌다.

협약식에서 명지대학교 총학생회 측은 "학교에 다니며 장애학생들의 불편한 학교생활이 안타까웠다. 장애학생들이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황재연 지회장은 "장애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해 나선 명



서울 서대문구지회와 명지대총학생회가 협약을 맺었다.

지대학교 총학생회에 박수를 보낸다"며 "좋은 성과를 이뤄 다른 학교로도 널리 퍼뜨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협약식에는 송주범 전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홍길식 서대

문구의회 부의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에 지지를 보냈다. 향후 서대문구지회는 명지대학교 총학생회와 함께 교내 편의시설 점검을 통한 시설 보수 및 확충에 협력할 계획이다.

임순봉 인천협회장, 인천체육진흥유공자표창 수상

생활체육 교류 통해 지역 장애인 건강증진 기여



임순봉 인천협회장이 인천광역시에서 인천체육진흥유공자표창을 받았다.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임순봉 협회장이 인천광역시에서

서 체육 발전에 공로가 큰 체육 단체에게 주는 '인천체육진흥유

공자' 우수단체표창을 받았다.

임순봉 협회장은 인천장애인 게이트볼협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생활체육 교류를 통한 지역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12월 29일 인천 문학공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인천 체육 발전에 기여한 체육단체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식사를 마련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격려했다.

정태희 울산협회장 '대한민국 사회봉사 부문' 대상

정태희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장이 제11회 대한민국 대한민국인 사회봉사 부문 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인 대상 시상식 선정위원회는 지난 12월 24일 대한민국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중흥을 위해 헌신한 각계 인사를 심사해 시상했다.

선정위원회는 정태희 협회장에 대해 '지역사회 장애인자

립을 위해 중고기업을 방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이었으며 소외계층,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國人大賞施實

전 11시 장소 대한민국국회 헌정



정태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울산협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태희 협회장은 수상 소감으로 "영광스러운 수상이 헛되지 않도록 더 낮은 곳에서 장애인 및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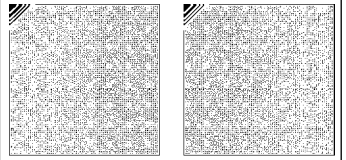
문경시지회, 유료주차장 운영 발대식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롤모델 될 것

경북 문경시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의 일부인 모전지구와 점촌1지구의 수탁을 맡아 관리하게 된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지회장 박홍진, 이하 문경시지회)는 1월 3일 발대식을 진행했다.

발대식에서 박홍진 지회장은 "주차관리원을 모두 배치해 시험 운영을 마쳤으나, 문경시가 처음 유료화를 실시하는 만큼 여

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시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문경시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경시지회 측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탁 운영하게 된 만큼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리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한편 시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지장협 송년회 개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부형중, 이하 제주지장협)는 12월 23일 고려회관 2층에서 '2015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송년회'를 개최했다.

송년회에서는 2015년 한해 제주지장협 발전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임직원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표창장을 전

달했다.

이 자리에서 제주시지회 한림읍 주순찬 분회장, 서귀포시지회 홍창희 총무부장이 중앙회장 표창을 받았다.

이어서 제주시지회 구좌읍 분회장 김지철, 서귀포시지회 대륜대천동분회 부분회장 이영호 씨에게는 제주협회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서 후원자 중 성낙선,

오민호, 진상용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제주지장협의 후원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한편 장애인 자녀 중 장학생을 선정해 장학금을 수여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전남과대학교 배명철, 제주고등학교 고희관, 남주고등학교 김지환, 서귀포고등학교 김유승 군이다.



제주지장협이 송년회에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대구 남구 장애인주차구역 인식개선 앞장

40여 곳에 주차방해 행위 안내표지판 설치

지체장애인편의시설대구남구지원센터(센터장 노경남, 이하 대구센터)와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인식개선과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방해 행

위는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 표시를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주차방해 행위는 지난해 7월 29일에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

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이에 남구청과 지체장애인편의시설대구남구지원센터는 1월 말까지 관내 공공기관, 다중집합시설,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 40여 곳에 주차방해 행위 유형과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리는 표지판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판 밑에 추가 설치한다.



대구센터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다.

저소득 재가장애인 가정에 난방용품 훈훈

괴산장북, 사랑의 난방비 지원 사업 실시

괴산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효선, 이하 괴산장북)은 지난 12월, 총 3회에 걸쳐 재가장애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의 난방비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사랑의 난방비 지원 사업은 괴산잡곡, (합)동서콘크리트, 한살림축산영농조합법인, (주)국제금속, (주)파인테크닉스

등의 후원금을 바탕으로 재가장애인 6가정에 연탄 2700장을, 10가정에 등유를 전달했다.

특히 괴산소방서(서장 최종서) 30여 명이 직접 재가장애인 가정에 연탄을 전달하며 모범을 보였다.

최종서 서장은 "어려운 지역 장애인들에게 직접 따

봉사하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괴산장북 정효선 관장은 "사랑의 난방비 지원 사업을 후원한 괴산 관내 기업 14곳과 자원봉사를 해주신 괴산소방서에 감사드리며, 지역 내 재가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을 체험했다.

28일 진행한 두 번째 강좌는 지역 내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근현대역사를 탐방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우리동네 골목길 역사이야기'라는 주제로 공주시 골목길을 투어했다. 또 한옥카페에서 전통차 체험으로 옛 정취를 만끽했다.

유성장북, 변화와 도전 위한 직원연수

2016년 복지관 비전 및 방향 공유



유성장북 직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손성도, 이하 유성장북)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호텔인터시티(유성구 소재)에서 1월 5~6일 1박2일간 직원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직원연수는 '변화와 도전을 위한 2016년!'이라는 슬로건으로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강의를 진행하고, 2016년 복지관 비전

및 방향을 공유했다.

강의는 직무능력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고서 작성의 정석, 복지시설 종사자로서의 역할 및 자세, 비즈니스 매너, 대전광역시 2016년 장애인복지 시책 방향을 주제로 펼쳐졌다.

이와 함께 직원들은 서로 업무를 공유하고, 새해 덕담을 건네며 친목을 도모했다.

충남남부장북, 인문학강좌 실시

지역 전통과 근현대 역사와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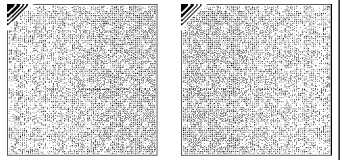
충청남도남부장장애인종합복지관은 12월 24일, 28일 2회에 걸쳐 장애인들에게 역사와 문학에 대한 안목과 지식 공유를 위한 2015 인문학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양반문화의 작은 도서관! 명재고택'으로 충남역사박물관을 방문해 충남의 역사를 이해하고, 논산시 노성면의 명재고택을 견학하며 전통가옥

성남장복 정의철 관장, 지장협 복지관협의회회장 선출

“소통과 협조 통해 유기적으로 운영할 것”

소리로 읽는 새보람



지장협 복지관협의회 회의에서 성남장복 정의철 관장을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애인복지관협의회가 새로운 협의회장을 선출했다.

1월 21일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성원 19명 중 18명 참석으로 열린 장애인복지관협의회 1차 관장회의에서 안건으로 제6대 협의회 회장 지명안이 상정되었다. 운영규칙 '제3장 조직 제8조 (구성) ②항 : 협의회장은 복지관 장 중에서 법인 대표이사가 지명하며, 부회장은 협의회장이 지명한다'에 의거하여 성남시장재인

종합복지관 정의철 관장이 선출됐다.

정의철 신임 회장은 “그동안 역임하신 협의회 회장의 노고와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이끌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법인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발전하는 협의회가 되기 위해 중앙법인과 소통하며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선출 소감을 전했다.

장애인 건강증진 위해 상호 협력

의정부장복-의정부병원, 의정부시보건소 MOU

지난 1월 15일 의정부시장재인 종합복지관(관장 이춘희, 이하 의정부장복)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원장 김왕태), 의정부시보건소(소장 양순복)와 장애인의 건강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자 업무협약 체결을 실시하였다.

이번 협약의 중점 사항은 건강관리 증진 프로그램 연계 및 지원,

관련 프로그램 네트워크 강화 등 협력체계 유지, 기타 건강증진과 관련한 제반 사항 협력 등이다.

의정부장복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건강 관련 프로그램과 의료연계를 통해 이용고객의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와 재활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돼

지역 장애인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협약식에서 의정부장복 이춘희 관장은 “장애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여러 기관에서 함께 협약을 체결한 만큼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건강 관련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정부장복과 의정부병원, 의정부시보건소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은경 시의원, 장애인 복지 현장체험

처인장복 중증장애인 고용업체 방문



이은경 용인시의회원이 일일 장애인 복지 현장체험을 하고 있다.

용인시의회 이은경 시의원은 12월 16일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관장 박상구, 이하 처인장복)과 지역 내 중증장애인 고용업체에서 ‘일일 장애인 복지 현장체험’을 실시했다.

처인장복 관계자는 이번 현장

체험은 장애인 및 종사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장애인 복지 환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은경 의원은 직무체험을 하는 한편 사업주와 장애인근

로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 복지관에서 급식 지원을 함께하고, 주간보호센터 원에 프로그램과 장애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현장을 체험했다.

일일 체험을 마친 이은경 의원은 “오늘 하루 복지관 가족들과 함께 한 시간이 소중하고 감사하다”며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장애인 복지 현장에 대한 이해와 개선점을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역 장애인의 다양한 고충을 공감하고 소통해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성남장복, ‘더 특별한 산타잔치’

코원에너지서비스, 80여 명 추억 선사



성남장복이 코원에너지서비스와 함께 산타잔치를 진행했다.

성남시장재인종합복지관(관장 정의철, 이하 성남장복)은 12월 23일 코원에너지서비스의 후원으로 ‘더 특별한 산타잔치’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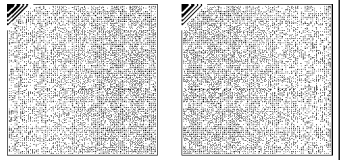
이날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며 장애아동과 부모 80여 명이 복지관 강당에 모였다. 코원에너지서비스 직원들이 산타복장을 하고 선물을 증정하며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했다. 또 경기도립국립악단의 흥겨운 국악가락이 장애아동들을 춤추게 해

박수가 터져 나왔다. 또 아이들은 산타할아버지와 함께 캐럴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

코원에너지서비스 직원은 “산타복장을 한 내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즐거워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산타잔치에 참여한 아동은 “산타할아버지가 예쁜 장갑을 선물해 줬어요. 매일매일 하고 다닐래요”라며 맑게 웃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실천하는 권리, 투표참여로 시작한다

북부장북, 장애인 투표 참여 활성화 노력



장애인들이 중앙선거관리를 방문해 투표체험 설명을 듣고 있다.

서울시립북부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손영호, 이하 북부장북)은 1월 15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40명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투표체험을 했다.

이번 체험은 제20대 총선을 맞아 장애인선거 편의 지원을 위한 시설 견학 및 투표체험으로 진행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유형에 구분 없이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마련했다.

체험에 참여한 김 모(지체2급) 씨는“몸이 불편해서 투표를 굳

이 해야 하나 했는데, 장애인도 편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한 모습을 보며 이번 총선에는 꼭 투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투표체험을 마련한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현재 서울시립북부장장애인종합복지관 명예관장으로 활동 중이며 장애인의 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부장북 관계자는 “곧 다가오는 4월 13일 총선에는 편의시설 지원을 통해 모든 장애인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선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아산장북, 아산시장 표창 수상

아산 지역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공로 인정

아산시장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은 12월 31일 아산시청 대강당에서 아산시장(시장 북기왕)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아산장북이 지난해 6월부터 ‘장애인취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카 클리

닝 기술을 활용한 아랑두림협동조합 설립과 아랑세차장 개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아랑세차장 개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 5명과 고령자 8명에게 직업인으로서 자립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산장북 이창호 관장은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의 직업창출을 통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도와 완전한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산시에서 표창을 전해 받은 아산장북 이창호 관장.

홍성장북 저소득층 장애인 난방지원

에너지효율개선사업, 36가구 보일러 등 교체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북천규, 이하 홍성장북)은 저소득층 장애인 36가구를 선정해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재단이 함께하고 (주)

민은종합건축이 시공을 맡아 진행됐다. 선정된 가구는 각각 창호공사, 단열공사, 보일러 교체, 도배 등 낙후된 시설을 보수해 한겨울 강추위에 대비할 수 있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 이

하의 임차가구로 각 읍·면사무소 및 재단에서 신청·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선정 후 방문조사, 진단, 시공 및 물품지원, 현장점검 및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졌다.

한국장애인재단, 주거복구 긴급지원

망연자실 장애인부부 다시 일어나

한국장애인재단(이사장 이성규)은 1월 13일 화재로 주택을 잃은 김 모(지적장애, 56세) 씨 가정을 방문해 주택복구 긴급지원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1월, 화재로 주택을 잃은 김 씨 안타까

운 사연을 듣고 문경시장장애인복지관(관장 박종훈)이 한국장애인재단에 ‘주거복구 긴급지원금’을 신청하며 이루어졌다.

장애인가장인 김 씨뿐 아니라 아내 송 모 씨도 지체장애로 거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로도 취약해 주택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문경장북 측은 “이번 지원으로 복구를 시작하게 돼 다행”이라며 장애인재단에 고마움을 표현했다.

영천장북 ‘사랑 더하기 행복’

한해 되돌아보는 송년행사 훈훈



영천장북이 송년행사 ‘사랑 더하기 행복’을 진행했다.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제근, 이하 영천장북)은 지난 12월 18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장애인,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송년행사 ‘사랑 더하기 행복’을 실시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정을 나누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송년행사는 작품전시, 감사패 전달,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및 간식배부 등으로 이루어졌다.

영천장북이 마련한 감사패

는 꾸준히 복지관을 후원한 영천시문화봉사단 오진교 단장, 자연보호중앙연맹 경북영천시협의회 동부동 남경혜 회장, 한마음봉사회 김학순 회원, (주)웅가네식품 이승욱 대표, 소생푸드 김왕섭 대표, 도미노피자 영천점 고재식 대표에게 돌아갔다.

영천장북 측은 “이번 송년회는 한해를 되돌아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과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장협 김광환 중앙회장이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국회의원이 특강을 펼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지장협 조항현 이사가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지장협 중앙회 및 17개 시·도협회 기수단 입장.



김광환 중앙회장이 감사패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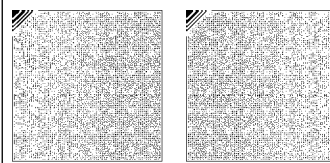
김광환 중앙회장이 전국의 지도자들과 새해 덕담을 나누고 있다.



2016 신년인사회 및 전국지체장애인지도자대회 전경.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전국 지체장애인 지도자들.



2016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

새해를 맞아 보건복지부는 2016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6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가운데 장애인복지를 중심으로 변경된 주요 복지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전체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는 3500명 확대된 6만 1000명이다. 급여대상 중 장애 정도와 지원 필요성에 따라 활동보조 가산급여를 지급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스스로 옮겨 앉기, 자세 바꾸기 등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활동보조급여 시간당 단가는 2015년 대비 2.2% 인상된 9,000원을 지급한다. 시행은 2016년 1월부터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활동지원급여 대상자 확대	57,500명	61,000명
최중증 장애인 활동보조가산급여 지원	신규	사업예산 12억 원
활동보조급여단가 인상	8,810원	9,000원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의 201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00만 원, 부부가구 기준 1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전년도(2015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93만 원(부부가구 148만 8천 원)에 비해 7.5% 상향된 금액이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 인구의 70% 수준이 장애인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16년 4월부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월 최대 28만 5,230원(잠정)의 장애인연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1)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장애인연금 제도	• (선정기준액) 단독 93만원, 부부 148만 8,000원	• (선정기준액) 단독 100만원, 부부 160만원('16.1월,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 (지급액) 최대 20만 2,600원 * 부부수급자 20% 감액	• (지급액) 최대 20만 5,230원('16.4월, 기준연금액 상향 조정 예정) * 부부수급자 20% 감액

■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복지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부모심리상담서비스, 공공후견 지원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와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가 신규·확대 제공된다. 광역지자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를 신규 설치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또 행동발달증진센터를 2개소 신규 설치해 공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발달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을 지난해 5억 원에서 올해 10억 원으로 2배 늘려 가족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공공후견법인을 지정하고 후견인 후보자를 교육하며, 병원·은행 이용, 재산 관리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권리행사를 돕는 예산을 기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확대한다.

시행은 4월 이후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1)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인상돼, 최저보장 수준이 확대됐다.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소득 인정액이 약 118만 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6년에는 약 127만 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최저보장 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2016년도부터는 127만 원으로 인상돼, 2015년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9만 원가량 인상된다.

시행은 1월부터다.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2)

■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확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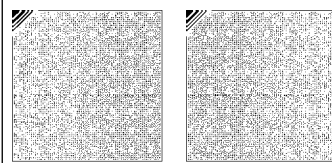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를 위해, 지난 3년간 검사·시술·약제 370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2016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우선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3월부터는 전 세계에서 그 수가 매우 적거나 질병 코드가 없는 극히 귀질환 및 꾸준한 진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확정하지 못하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45)



‘2015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자립상(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수상 수기

모든 게 당신 덕분이라는 말

—— 육동일 · 전덕출 부부

갑자기 찾아온 소아마비

우리 남편은 1949년 충북 옥천군 청성면에서 6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남편은 2살 때 어느 날 갑자기 한쪽 팔을 늘어뜨리고 계속 울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당시 근처엔 의료시설도 없고 병원 간다는 것은 더욱 생각도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은 식구가 남편을 위해 병원 약방이며 알 만한 곳은 다 돌아다니며 치료를 시도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때는 이런 병이 부지기수여서 가족들은 돌림병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나라 상황도 전시인데다 지역도 농촌이라 특별한 치료를 하지 못한 채 남편은 오른팔을 사용할 수 없는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 남편은 왜 나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나 하는 의구심으로 혼자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자라면서 왼팔만 사용하는 관계로 오른팔이 점점 가늘어졌고, 몸이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해 걷는 것도 한쪽으로 항상 굽어보이는 걸음걸이가 되었습니다.

그대를 만나 행복합니다

남편은 힘든 상황에도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9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해 일찍이 공무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남편은 객지에서 생활해 본 경험이 없어 집을 떠나면 안 되는 것으로만 생각해 줄곧 고향 면사무소로 발령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에 따라 공직생활 41년 중 18년 동안 고향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승진하는 데 악조건이 되었습니다. 군청에 근무하면 승진이 빠르는데 남편은 면사무소만 근무함으로써 28년간 6급으로만 머무르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면사무소가 군청과 순환 인사교류가 안 돼 군청근무자는 군청에, 면사무소 근무자는 면에만 근무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고향 면에서 근무하고 있던 남편은 29살 노총각이었습니다. 저도 그이를 만났을 때 21살로 혼기가 찬 상태라 주변에서 빨리 결혼하라는 재촉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단 둘이 살던 저는 망설여졌지만, 매일 집에 들어서 저를 만나

고 가던 남편의 살가움에 결국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듬해 1월 7일 옥천군청 사회복지과 담당계장의 주선으로 부군수가 주례를 하는 가운데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장애인이었고, 저희 집안은 가난했지만 마음이 맞았기에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가끔 저와 결혼할 때 눈물 나게 기뻐고, 결혼해서 세상 사는 즐거움을 크게 느꼈다고 고백하곤 합니다.

만일 남편이 장애를 입지 않았다면 면사무소에서 근무를 할 일도, 그리고 저와의 인연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남편은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교사가 되면 칠판에 분필로 글씨를 쓰면서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데, 아무리 연습해도 되지 않아 꿈을 접고 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그이는 공무원시험을 공부할 때 장애를 원망하며 많이 울었지만, 공무원이 돼 면에서 근무했기에 저를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모든 원망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그런 말에 감동한 저는 더욱 정성스럽게 가정을 돌봤습니다. 가난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알뜰하게 살림했고, 남편이 일에 전념하도록 열심히 내조했습니다.

당신 덕분이라는 말

결혼 초기에 농촌에서는 새마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을마다 자기마을 발전을 명목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던 때라 남편도 면에서 매일 출장을 나가 주민을 돌보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교통·통신이 보잘 것 없던 시절인데, 갓 태어난 우리 아들이 설사와 고열로 탈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이를 업고 울면서 맨발로 달리는데 남편에게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침 인근마을에 남편의 후배인 의사가 친정에 왔다가 이 소식을 듣고 와서 응급치료를 한 덕분에 한숨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살다보면 크고 작은 일이 생기는데 위기 때마다 우리 힘을 모아 가정을 지켰습니다. 남편은 작은 일이라도 제가 해결하면 “당신이 대처능력이 빨라서 해결했

다”며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힘이 나고 절로 웃음이 납니다.

청성면장에 오르다

남편은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나라에서 2003~2004년, 단 2년 동안만 한시적 5급 승진시험 제도를 실시한 것입니다. 남편은 열심히 공부했고, 옥천군에서 유일하게 합격해 5급으로 승진했습니다. 그이가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면서 동료들 사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옥천군 내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남편은 시험 합격 후 고향인 청성면장으로 발령이 나 2년간 면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이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20세에 공직에 입문해 정년 60세까지 41년간 근무했습니다.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 3급임에도 피나는 노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저는 우리 남편이 자랑스롭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본인의 성공을 다 제게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이 결혼 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조해 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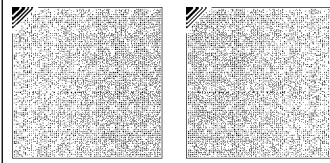
아내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쑥스럽다며 그만하라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듣기 좋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남편이 고맙습니다.

남편은 정년퇴직을 하면서 공직생활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장애인 복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의 인생 이모작이 시작된 것입니다. 면에서의 오랜 공직생활이 지역 분들에게 신뢰감을 주었던지 충청북도지체장애인협회 옥천군지회 청성면 분회장을 탈락 맡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활동하려던 남편은 처음에 부담스러웠으나 금세 익숙하게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충북협회 옥천군지회장이 되어 지역 장애인들과 한 식구처럼 어울려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남은 일생, 지역의 장애인을 위해 살자고 다짐하며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우리 남편을 응원합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애인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NIA, 지체·시각·청각장애이용 3종 상용화 추진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 이하 NIA)은 지난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으로 개발된 3개 지원과제 결과 3개 제품을 개발,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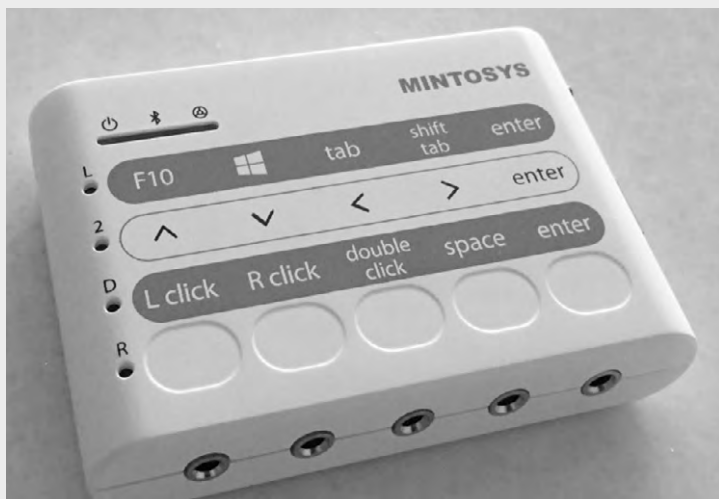
이번에 개발한 과제는 각각, 지체·뇌병변, 시각,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다.

먼저 (주)민토시스템이 개발한 ‘통합형 컴퓨터 접근 보조기기’는 지체장애인이 화면키보드 입력시 안정적인 물리적 키보드로 인식하는 화면키보드 및 USB장치다. 손떨림으로 키보드나 마우스 사용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마우스 손떨림 보정 필터 기능을 갖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의 검색 및 실행 등이 용이하도록 접근성을 크게 높인 ‘시각장애인 전용 안드로이드 런처·인터페이스(UI)’는 (주)에스씨가 개발하였으며, 안드로이드 기기 자체의 사용자 접근성을 개선하였기에 시각장애인들이 안드로이드 기기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청각장애인이 영상을 통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원격지에서도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원격 호출단말기’로 (주)샘플정보통신이 개발했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응급시이나 비상시 영상 호출기로 활용 등 다양한 장소에서 발신자 식별 및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3개 제품은 상용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손쉽고 편리하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발 소식을 접한 장애인이나 관련 단체로부터의



지체장애이용 '통합형 컴퓨터 접근 보조기기'



시각장애이용 '시각장애인 전용 안드로이드 런처·인터페이스(UI)'



청각장애이용 '원격호출단말기'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 사업은 2004년도부터 2015년까지 총 39건의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을 통해 시각, 청각·언어, 지체·뇌병변 장애유형에 적합한 27종의 제품을 상용화했으며 외국 제품의 국산 대체와 함께 170억 3,6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해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해 왔다.

NIA 서병조 원장은 “2016년에는 모바일 기기의 접근 및 활용 등 장애인의 정보생활 촉진을 위한 모바일 보조기기 중심으로 개발 및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제품이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학년도 1학기 기간: 1월 1일 ~ 2월 12일
한국복지사이버대학 신·편입생 모집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의 산학교류협약으로

등록금 걱정없이 대학 진학!!

(졸업 후 전문학사 학위와 함께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등 다양한 자격증 취득)

국가장학
지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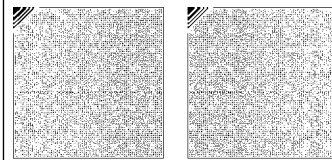
다양한
장학금
제도

사회적배려자(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는 **100% 장학지원**

학과	관련자격증	
청소년복지상담학과	사회복지사 2급	글로벌문화교육사
다문화보육복지학과	보육교사 2급	라이프코칭지도사
아동복지학과	청소년지도사 2·3급	원예심리상담사
복지경영학과	평생교육사 2·3급	가족보호사 1·2급
생활환경복지학과	직업상담사 2급	방과후독도교육사
경찰행정복지학과	임상예술심리상담사 3급	방과후지도사 2급
군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지도사 2급	건강가정사
심리상담치료학과	심리상담사 1·2급	청소년상담사 3급
독도학과	통합미술심리지도사 1급	독도교육사
※ 상기 자격증 중 4~6개 취득가능		

상담 및 문의 | 임승환 부총장 (053-712-3030, 010-3824-0118)
입시처 (053-712-3011)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애인 ‘문화가 있는 날’ 시행

이음에서 매월 마지막주 전시·공연 개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는 1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개최한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 수요일로 전국의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춰 국민들이 쉽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장애예술인과 장애인들이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서울 대학로)에서 ‘i love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연 12회 진행

한다. 행사는 전시, 공연 등 4가지 프로그램이 묶음 형식으로 제공된다.

첫 번째 형식은 ‘세상의 하나밖에 없는 전시’다. 신인 장애인 화가를 발굴한다는 취지로 특별한 퍼포먼스와 설치미술이 어우러진 미술전시를 선보인다.

두 번째는 ‘모두가 행복한 극장’으로 실연 또는 연극과 뮤지컬을 상영한다. 장애인의 접근성이 부족한 소극장 등에서 진행한 공연을 녹화해 영화처럼 상영한다. 대학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익스트림플레이’ 등 많은 극단의 저작권 협찬으로 진행된다.

세 번째는 파티가 있는 하우스콘

서트다. 예술가와 관객이 함께 호흡하며 공연과 파티를 접목해 즐기는 새로운 형식의 콘서트다.

네 번째 테마는 대학로의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인디밴드와 함께 하는 음악이 흐르는 강연쇼’다. 음악과 강연의 콜라보레이션에 다양한 연령층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i love 문화가 있는 날’의 관람을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은 전화(02-6737-0900)로 예약하면 된다. 모든 관람료는 무료이며, 단체관람일 경우 전석 모두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최소 공연 3일전에는 예약해야 한다.



첫 번째 ‘문화가 있는 날’ 행사 포스터. ©빛된소리글로벌예술협회

2016년 장애인체육 예산 596억 원

리우 패럴림픽 지원 고려 대폭 증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6년도 장애인체육 예산으로 596억 원을 책정했다.

이는 지난해 528억 원에서 13%(68억 원) 증가한 규모로, 2016년도 문체부 재정(5조4,989억 원)의 증가율인 10%를 넘어선다. 올해 열리는 리우 패럴림픽 훈련 지원비로 23억 원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중

중증장애인 선수단 비율(30%)이 높은 점을 고려, 중간기착지인 미국 애틀랜타에서 전지훈련을 일주일간 시행함으로써 비행 시간을 줄이고, 시차 적응을 도와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휠체어컬링훈련장을 건립하는 등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 대비 및 동계스포츠 특별육성에 130억 원을 투입한다. 이

는 지난해 46억 원에서 84억 원을 증액한 것이다.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시설인 인천훈련원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서는 휠체어컬링훈련장의 총 건립비는 177억 원(국비)이며 내년 예산은 112억 원이 편성됐다.

문체부는 “장애인 선수들이 리우 패럴림픽과 평창 동계패럴림픽 등 국제종합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안정적인 훈련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체부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의 상시 훈련 일수를 올해 대비 20일 늘어난 연평균 120일로 책정, 선수들의 지속적인 기량 향상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비장애인 선수와 같은 연중 210일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수당을 일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리는 등 장애인체육 국가대표 훈련 여건 개선에 총 67억 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장애인 국가대표 후보선수(상비군) 지원에 신규로 5억 원을 편성하고, 인천훈련원 운영·건립에 147억 원,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에 121억 원, 장애인실업팀 육성에 13억 원 등을 지원한다.

그밖에 문체부는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2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보수하는 등 장애인 체육시설 개선에 투자할 계획이다.

장애인 메달리스트, 개발도상국 꿈나무 지원

패럴림픽언클럽, 2020년까지 정기후원

장애인 국가대표 및 은퇴선수들의 모임인 대한패럴림픽언클럽(회장 홍영숙)이 개발도상국 장애인스포츠 꿈나무를 후원한다.

대한패럴림픽언클럽은 2016년부터 2020년 도쿄패럴림픽까

지 매월 5만원씩 2명에게 후원금을 지원한다. 후원금을 받는 선수는 작년 6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한 ‘2015 KPC 개발도상국 초청 장애인스포츠 개발 캠프’에서 두각을 보인 이스마일(모로코, 휠체어테니스, 17세)

과 마리아 벨렌(에콰도르, 수영, 20세)이다.

지난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천훈련원에서 열린 ‘2015 KPC 개발도상국 초청 장애인스포츠 개발 캠프’를 참관한 휠체어테니스 선수 출신 홍영숙 회장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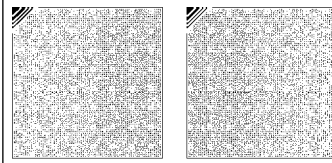
“미래의 패럴림픽언이 되기 위해 훈련하는 개발도상국 장애인소년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꿈을 이루는 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패럴림픽언클럽은 꿈나무 선수들에게 정기 후원금과 더

불어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에 초청하여 경험을 쌓고, 패럴림픽 참가동기를 부여하는 등 지속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대한패럴림픽언클럽은 장애인 국가대표 및 은퇴선수들의 모임으로 정진완(사격), 박종철(역도), 유희상(육상) 등 패럴림픽에 출전한 은퇴 장애인선수 7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당시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바 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왼손 없는 고교 미식축구선수

학교 리시빙 야드 기록 깨며 화제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케임브리지의 한 고교 미식축구부에는 왼손이 없는 와이드리시버 크리스 실바(18)가 있다. 이 선수는 자신이 속한 스프링스고등학교의 역대 리시빙 기록을 깨면서 학교 최고의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쿼터백의 패스를 받아야 하는 리시버 포지션은 양손으로 정확히 포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선천적으로 왼손이 없는 상태로 태어난 실바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왼손 대신 불가능을 뛰어넘는 초인적인 의지와 자신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다.

오른손으로 신발끈을 짚곤 묶은 실바는 필드에서 뛸 때 손이 없는 왼쪽 팔을 대 오른손으로 정확하게 미식축구공을 잡는다. 190cm의 큰 키와 37m를 4.4초 만에 달리는 주력을 앞세워 빠르게 공격한다.

실바는 지난 9월 경기에서 통산 915야드를 기록해 자신의 학교의 와이드리시버의 리시빙 야드(912야드) 종전 기록을 17년 만에 새로 썼다. 이런 활약으로 벌써 몇몇 대학에서 입학 제의를 받고 있다.

실바는 어릴 때 위탁보호소에서 자랐다. 프랭크매리 티핑 부부가 그를 입양해 키우면서 제대로 된 가정의 지지를 받고 성장할 수 있었다.

실바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늘 마음속으로 어떤 것이든 해낼 수 있다고 믿어왔다. 물론 남들보다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걸 뛰어넘을 때까지 노력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렸을 때는 남들처럼 할 수 있다는 걸 자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면, 지금은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며 고난을 극복한 자신감이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줬다고 전했다.

왼손 없는 고교 미식축구선수 크리스 실바. ©크리스 실바 트위터

스마트폰 앱으로 자폐증 판별

‘오티즘 앤드 비욘드’ 시험 단계까지 개발

어린이의 표정 변화, 즉 안면 근육의 변화를 바탕으로 자폐증 징후를 판별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개발되고 있다.

지난 12월 31일 미국 해군은 듀크대 연구진이 미 해군의 지원을 통해 ‘오티즘 앤드 비욘드(Autism & Beyond)’라는 이름의 앱을 시험 단계까지 개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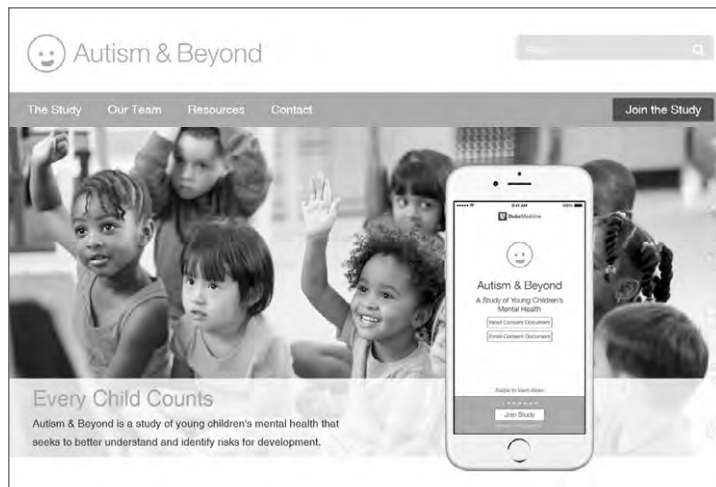
상태라고 밝혔다.

이 앱은 만 1세 이상, 6세 미만 어린이가 휴대전화에 표시되는 영상을 보거나 간단한 질문에 답할 때 셀카용 카메라를 이용해 어린이의 안면 근육 변화를 기록한다.

듀크대 측은 “수집한 영상 정보를 축적하고 전문가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자폐증을 비롯한 여

러 정신질환 발병 가능성을 예측하는 게 목표”라며 “정신질환 판별 내용을 임의로 활용하지 않고 부모가 연구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동의를 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미 해군은 이 앱의 기능을 확장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나 외상성 뇌손상(TBI)의 발병 징후 예측을 목표로 삼



오티즘 앤드 비욘드 홈페이지. ©Autism & Beyond

고 있다.

미 해군연구국(ONR)은 이 연구가 성과를 내면 각지의 보훈병

원에서 참전군인에 대한 예방적 원격진료가 가능하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생체공학 눈 이식 성공

망막색소변성 시각장애인 시력 회복

영국에서 시력을 완전히 잃었던 40대 여성이 생체공학 눈을 이식받고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다.

라이언 루이스(49)는 유전적 망막질환인 망막색소변성으로 5살 때부터 서서히 시력을 잃어 16년 전부터 오른쪽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왼쪽 눈의 시력은 미약하게 남아 움직이는 빛 정도만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올해 18살이 된 쌍둥이 자녀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키워야 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안구용 임플란트 개발 소식을 들었다.

옥스퍼드대학의 존 레드클리프 병원 의료진이 그녀에게 독일의 한 회사가 개발한 ‘망막 임플란트 마이크로 칩’, 즉 생체공학 눈을 소개했다. 작은 알약 크기

의 이 칩은 깔때기처럼 빛을 한 곳에 모은 뒤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칩을 눈에 이식하면 빛의 신호가 뇌로 전달돼 피사체를 볼 수 있는 원리다.

이 생체공학 눈은 이식자의 뇌 회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시신경의 역할만 대신하기 때문에 부작용 우려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7개월 전, 7시간의 수술 후 눈을 뜬 루이스는 “거리를 달리는 은색 차량을 눈으로 직접 본 뒤 눈물이 솟았다. 이제는 테이블 위의 정확한 자리에 포크를 놓을 수도 있고, 시계에 적힌 시간을 읽을 수도 있게 됐다”고 기쁨을

표현했다.

수술과 치료를 담당할 옥스퍼드대학의 로버트 맥라텐 교수는 “루이스는 영국에서 최초로 생체공학 눈을 이식받고 시력을 회복한 환자”라면서 “NHS(영국 국민보건서비스)는 수 년 내 루이스 같은 환자를 위한 수술비용을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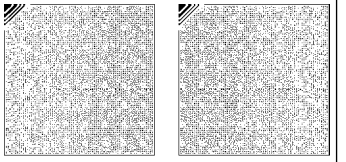
이를 개발한 독일 회사 ‘레티나 임플란트 AG’ 측은 생체공학 눈이 루이스처럼 유전적 영향으로 시력을 잃은 사람을 포함해 노화로 앞을 볼 수 없게 된 노인도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루이스의 ‘새 눈’이 볼 수 있

는 세상은 1600화소 수준으로 건강한 일반인의 눈에 비해 크게 낮으며, 사물의 기본적인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다. 그러나 루이스는 “이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전자 안구의 수준이 가까운 미래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개발한 독일 회사 ‘레티나 임플란트 AG’ 측은 생체공학 눈이 루이스처럼 유전적 영향으로 시력을 잃은 사람을 포함해 노화로 앞을 볼 수 없게 된 노인도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도와줄 것으로 기대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국가·지자체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도 공고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아 장애인 의무고용률(정원의 3%)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고

용률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왔으나, 장애인 공무원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해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이

고,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고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유도해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도록 했다.

또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를 잘못된 경우 오류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을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해 신고 편의성도 높였다.



발달장애인 탁구선수가 수강생의 탁구자세를 교정해주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생활체육 보조코치 된 발달장애인 운동선수

중증장애인에게 생활체육서비스 제공

“자, 어머니. 스매싱을 하실 때는 집에 계신 남편 분을 생각하면서 때리세요. 그래야 잘 맞습니다.”

발달장애인 탁구선수 이○○씨가 탁구 자세를 설명할 때마다 웃음이 터져 나온다. 발달장애인이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하는 것을 기대하지 못한 듯 했다.

발달장애인이 ‘생활체육 보조코치’가 됐다. 발달장애인 5명은 2016년 1월 1일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 4개 종목(축구, 농구, 탁구, 육상)의 ‘생활체육 보조코치’로 채용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이하 공단)과 서울특별

시장애인체육회(회장 박원순, 이하 서울시체육회)는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활체육 보조코치’ 직무를 개발했다. 발달장애인 운동선수의 비율은 높은 수준이지만 경력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은 점에 착안, 직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다.

‘생활체육 보조코치’는 전국 체전 등 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발달장애인 운동선수 중 선발하며, 메인 코치와 함께 중증장애인에게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된다.

‘생활체육 보조코치’가 된 발달장애인 5명은 지난해 10월 12

일부터 2개월 간 서울시체육회가 진행하는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현장에 배치돼 연수를 받은 바 있다. 공단은 구직역량 강화프로그램과 직무능력평가, 시험고용 연수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박승규 공단 이사장은 “생활체육 보조코치 직무 개발 사례는 발달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 “향후 타 시·도 체육회로 확산돼 발달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노동상담, 22%가 부당해고

임금체불, 부당처우 등 뒤 이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불안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회장 조향현) 장애인노동상담센터에 접수된 2015년도 장애인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상담 453건(온라인 상담을 제외하면 총 314건) 중 부당해고와 관련된 상담이 2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4년(24.7%)에 이어 부당해고와 관련된 상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뒤를 이어 임금체불 21.3%, 부당처우 19.4%, 퇴직금 12.4%, 실업급여 11.1%, 산재 7.0%, 고용장려금 0.3%, 기타 5.8%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조호근 장애인노동상담센터장은 “부당해고 자체도 심각한 문제지만, 부당해고와 관련이 있는 부당처우, 실업급여 지급 관련 상담을 포함하면 53.2%로 경제 불황 속에 거리로 내몰리는 장애인 근로

자들이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피상담자 중 남성의 비율이 79.2%로 여성(20.7%)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장애유형 중에서는 지체장애가 58.5%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14.9%), 청각장애(12.4%), 신장장애(7.0%), 뇌병변장애(5.7%), 지적장애(1.2%) 순서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은 서울이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기도(21.9%), 인천(13.1%), 부산

(6.3%), 대구(5.7%), 울산(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상담자의 장애정도에 따른 비율은 경증장애인이 89.2%로 중증장애인(10.8%)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피상담자의 연령은 20대가 54.1%로 가장 많았고, 30대(32.8%), 40대(6.3%), 50대(4.1%), 70대(1.5%) 순서였다.

마지막으로 피상담자가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규모는 20~49명이 3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19명이 30.8%, 5~9명이 15.6%, 5명 미만 14.9%, 50~99명이 1.9%, 100인 이상이 0.2%로 나타나 피상담자의 97.9%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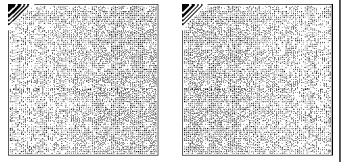
한편 장애인노동상담센터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장애인 근로자가 노동현장에서 겪는 각종 노동문제를 무료상담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노동상담을 원하는 장애인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02-754-3871)나 홈페이지(www.kesad.or.kr) 노동상담게시판으로 신청하면 된다.

민원상담

임상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기획정책국장보)

소리로 읽는 새보람



행복주택 지원제도



Q) 사회초년생의 취업난과 힘들게 취업해도 낮은 열정페이로 주거지 마련이 쉽지 않은데 사회초년생을 위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행복주택 지원제도가 있는데요, 행복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물량의 80%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공

급됩니다.

자격 요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직장이 행복주택과 인접한 지역에 있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기간은 6년으로 제한되는데, 만약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 신분으로 행복주택에 살다가 결혼할 경우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회초년생에게 제공되는 행복주택은 원룸형태로 2017년까지 14만 호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0% 물량인 11만 2천호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공급됩니다.

입주자격은 사회초년생: 임대물건 인근 직장내 재직 중인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자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

로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Q) 행복주택에는 사회초년생 이외에도 입주대상이 될 수 있군요.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실래요?

A) 행복주택 입주대상자는 크게 대학생, 신혼부부, 노인, 취약계층, 산단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학생의 경우에는 인근(연접시·군 포함)대학교에 재학 중인 미혼 무주택자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본인)해야 하며,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인근 직장내 재직 중인 결혼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

벌이시 12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인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역시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경우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며, 산단근로자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시 120% 이하),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이 충족되어야 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질문이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홈페이지(<http://www.kappd.or.kr/>) 민원상담실에 올려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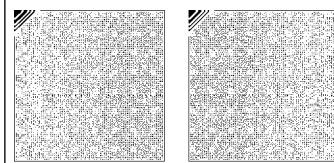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입니다.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꿈드래

인쇄·현수막·실크인쇄·판촉물·임가공

문의 02-812-7176 홈페이지 www.workshop.or.kr 판촉물사이트 www.dreammaker.co.kr



장애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헌법으로 개정하자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서초구지회장 최광훈

대한민국 헌법은 최고법이며, 살아있는 규범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 헌법에서 사회의 각 분야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국가적 범주로 포함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지향점과 가치로 규정한 이유는 바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함일 것이다.

헌법의 이러한 지향점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인종, 연령, 성별, 종교, 성적 성향, 사회적 배경 및 신체적 능력의 차이로 인해 존엄과 가치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계층과 집단이 존재한다. 특히 신체적·정신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장애인의 경우 오래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데 있어 소외돼 온 것이 사실이다.

현행 헌법의 한계

현행 헌법은 장애인 문제를 기본권 실현이 아니라 사회복지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다. 장애인의 기본권 실현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 보장에 있는데, 기본권 실현보다는 자선적 성격의 사회복지 정책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권 실현은 해결되기 힘든 한계를 갖고 있다.

장애인의 기본권 실현은 '장애인의 수용과 재활을 반대하며 장애를 가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생활양

식을 가지는 것'과 '장애인 개인으로 하여금 가치 있는 방법에 의해 지역사회 안에서 인격적인 주체로서 정상적으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임에도 현행 헌법은 그 자체로서의 완결성이 결여된 규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세계 선진 각국은 장애인의 지위를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발전시켜 가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 보호는 헌법에 직접규정을 두어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기본법 제3조 제3항에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며, 스위스헌법 제112C조 제1항에는 "주(州)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가정 방문지원 및 재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헌법에 명문화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게 헌법의 궁극적 지향점인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있다.

향후 헌법 개정 방향

현행 헌법은 국제적인 장애인 인권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부족하다. OECD 가입국가이며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이행당사자국이자 국제장애인 인권선언 비준국가인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은 내용을

담아 더욱 강화된 장애인 인권 보장 방안으로 개정되기를 바란다.

장애인의 기본권은 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에 있다. 정상화는 장애인의 대규모 수용에 반대하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생활양식을 가질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회통합은 사회구성원들이 정서적인 유대를 가지고 공통 목표를 추구하며, 주류사회에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최고법인 헌법에서부터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행 헌법은 장애인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역행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장애인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통합적 사회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야 한다. 장애인이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동체 구성원과 국가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는 것은 인권적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다.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제34조 제5항에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해 '신체장애자'를 직접 언급하고 있다.

신체장애자로 직접 표현한 제34조 제5항은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보호 규정에 포함해 규정함으로써 규정체계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장애인복지 문제에 대한

인식 오류를 낳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보장은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및 제11조의 '평등의 원칙과 차별금지'의 규정에 의해서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제34조는 제1항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일반적 조항 또는 총칙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 '국가 목적규정'으로서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제3항에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 제4항에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 제5항에 '신체장애자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의 보호' 및 제6항에 '재해예방과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보호'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회 정책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적 개념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의 의미와 헌법 제10조에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나 '행복추구권' 등은 그 이념적 지표 또는 근본 규범으로서의 포괄성과 객관성은 차별화되기 어렵다. 이 점에서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구체적 지침으로서의 장애인의 보호는 당연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기초가 되고 있다.

문제는 구체적 실현으로서 그 권리가 보장되는 장애인의 기본권이 포괄성을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포섭돼 보장되는 경우에는 그 추상적 실현으로 인해 권리의 구체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의해 보장하려는 경우 장애인 기본권 보장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존엄의 보장으로



나타나 그 보장의 정도가 추상적으로 남게 된다.

현행 헌법에서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대한 명문규정은 헌법 제34조 제5항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의 보장을 통해서도 장애인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지만, 평등권 보호범위는 장애인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헌법에 장애인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해야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해 국가적 차원의 보장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헌법 제11조의 평등조항에 "그 누구도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문화해 장애인에 대한 독자적인 규범내용을 가지게 하여 "장애인 차별금지"를 명문화함으로써 선진국처럼 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헌법 정책적 지표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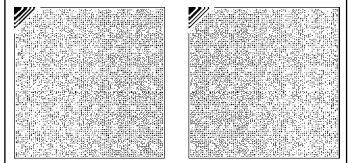
장애인의 기본권보장 및 평등권 규정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우선적 보장의 근거를 명문화해 장애인의 평등한 기회 및 권리보장, 차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으로써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72호 2016년 1월 29일

회장·발행인/김광환 편집장/오창석 기자/이정희 발행처/(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dd.or.kr E-mail : news@kapdd.or.kr

대표전화 : (02)796-4280 FAX : (02)796-4281
구독문의 : (02)2289-438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우리사회에 전국적인 장애인당사자조직 창립이 필요했다”

—— 지장협 초대 고문, 양경자 전 국회의원

새보람은 2016년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의 창립 30주년을 맞아 ‘시선8616’ 코너를 연재합니다. 1986년 창립부터 지금까지의 궤적을 돌아보고 발전적인 미래를 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만남으로 지장협의 창립멤버이자 고문을 역임한 양경자 전 국회의원을 만났습니다.

Q. 1980년대 척박했던 우리나라 복지환경에서 특히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A. 1986년 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레이건 대통령의 조찬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때 대통령을 촬영하며 실황중계를 하는 카메라기자가 지체장애인인 것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애인이 본인의 능력을 발휘해 사회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며, 미국이 선진국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또 지역에서 장애인들과, 또 장애아 부모님들을 만나며 절망적인 환경을 극복하려는 눈물겨운 모습을 보며 그들을 위해 국회와 정부와 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내 정책 활동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Q. 그 시기에故 장기철 지장협 초대 회장을 만나신 건가요?

A. 1986년에故 장기철 회장이 내 사무실 문을 박차듯이 열고 들어왔습니다. 요청을 하러 오신 분이지만 아주 당당했습니다. 그 분은 장애인에 대한 애정을 담아 장애인복지에 대한 소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장애인복지에 미온적인 정부를 비판하며, 장애인의 일상적인 벽이 얼마나 높은지 털어놨습니다.

장기철 회장은 또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전국 조직 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전국에 지체장애인이 시·도별로 20~30명씩 자생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어 영향력이 미미하니 전국 조직인 연합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라리 기업이나 명망가에게 일회성 후원금을 받는 것이면 간단할 텐데, 전국 조직 결성은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립의 토대를 만들자는 고인의 주장은 옳았습니다. 장애인이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국민이 되는 것은 내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하는 양경자 전 국회의원.

Q. 1986년 12월 27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천여 명의 전국 장애인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했는데 이날을 위해 후원을 이끌어 내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셨지요?

A. 창립총회를 위한 호텔사용비 식대 등 창립총회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난 디자이너故 앙드레킴을 찾아가 불우이웃 돕기 패션쇼를 제안했습니다. 그의 협조로 패션쇼를 성황리에 치렀고, 이 기금을 바탕으로 지장협 창립총회를 성대하게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날 장기철 초대회장이 내게 고문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평소 나는 장애인당사자주의를 주장해왔기에 지장협의 고문은 장애인이 해야 한다며 거절했지만, 재차 부탁하기에 관계기관과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할 것 같아서 수락하고 협회의 고문이 되었습니다.

Q. 협회 고문으로서의 활동은 어떠하셨나요?

A. 장기철 회장은 일주일이 멀다하고 연락해 장애인복지와 조직에 관해 이것저것 상의했습니다. 특히 능력 있는 지장협 시·도협회장들이 장애인자활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등기도 있어야 하고 후원도 받아야 해서 법인 등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 자립은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에 강력히 요청해 등록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법인 등록에 필요한 조건 중 하나가 사무실이었습니다. 장기철 회장이 용산우체국이 이사 간 것을 알고 그 곳을 지장협이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그 자리를 얻어 ‘한국지체장애자연합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Q. 고문으로 계시던 1989년 2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노동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하는 등 장애인복지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활동하셨습니다. 이 법 제정의 취지와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A. 장애인고용촉진법은 1986년 초 미국에 다녀온 후부터 구상했지만, 장기철 회장을 만나고 지장협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더 구체화되고 탄탄하게 준비해 대표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무고용이었습니다. 현재도 적용하고 있는데 주요골자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약 3%를 의무고용하고,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장은 장애인고용부담금(기금)을 내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고용을 창출하는 한편으로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

원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설립을 일차로 규정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두고 장애계에선 환영했지만 기업인들과 비장애인 근로자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여의도 바닥에 들어오지 말라”, “차 조심하라” 이런 항의 전화가 왔지만 내 마음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비등록장애인까지 하면 더 많겠지만, 등록장애인은 우리나라 인구의 5%인 약 250만 명입니다. 이 많은 장애인이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력의 손해요, 인권적 문제입니다. 장애인 고용창출은 국가 경제에 생산적이고, 장애인 개개인으로 봤을 때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장애는 불편할 뿐 능력과는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능력 있는 장애인이 많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의 통과는 동정과 시혜에서 권리의 복지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Q. 지장협이 올해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초대 고문으로서 감회가 어떠신지요?

A. 어려운 세월을 겪으면서도 성장하고 발전해서 30년을 맞이한 것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여기까지 오도록 중앙을 비롯한 전국의 임직원과 회원들이 얼마나 눈물겹게 노력했는지 생각하면 안쓰러움과 감동이 밀려옵니다.

30년간의 땀과 눈물, 그리고 아직도 전국 곳곳에서 불이익을 받는 장애인을 떠올리며 앞으로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단합해서 국내 최대 장애인당사자주의 조직으로서 자부심과 능력, 대표성을 갖고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장기철 초대회장(오른쪽 위), 고귀남 88장애인을 립픽위원장(왼쪽 위)과 함께한 지장협 현판식.

현장의 눈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현미 관장



남의 말을 경청하는 대화의 자세

장애인복지관에 들어온 지 어느덧 22년차가 되었다. 요즘 느끼는 것이지만, 경력이 많이 쌓일수록 복지관 이용자분들을 위해 일하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는 것은 언제나 주의 깊은 '경청'이라고 생각한다.

경청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집중해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래학자인 톰 피터스(Tom Peters)는 "20세기가 말하는 자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경청(傾聽)하는 자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인 스티븐 코비(Stephen R. Covey)는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대화 습관엔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단 하나만 들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 없이 '경청하는 습관'을 들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누구를 만나든 자

기 이야기만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평상시에 말을 못해 한이 되었거나, 말을 못해서 스트레스가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무척 많이 발견하게 된다. 상대방의 말은 전혀 안 듣고 자기말만 하는 이기적인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주위에서 많이 접하게 된다.

그저 말을 하면서 "나는 힘들어요. 내가 힘든 것을 좀 알아주세요."라는 위양스도 받게 된다. 하지만 서로 자기가 힘들음을 알아달라는 대화는 서로 공감하는 대화가 아닌 평행선을 달리는 대화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진정으로 경청해주고 알아주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된다. 그만큼 요즘의 시대에 필요한 건 적극적인 경청이 아닐까 싶다.

결국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얼마나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경청하느냐에 달려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경청의 반응이 아닌 진실함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복지관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개별사회사업(케이

스워크)인 상담업무를 진행할 때 비스텍(Biestek)이 말한 상담의 7대 원칙 중 '수용의 원리' 주목해야 할 것이다. 즉 내담자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보다도 내담자가 말하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관의 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 이용자와의 관계형성이나 상담 시에 꼭 유념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경청하는 수용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장애인 이용자 분들이 누구와 대화를 나누지 못해 복지관을 찾는 경우도 간혹 발견하게 된다. 내면의 깊은 사연을 누구에게도 말로 나눌 수 없을 땐 복지관에 와서 자기의 말을 들어 주는 장애인 동료들이나 직원들을 찾아서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하는 장면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어쩌면 복지관은 자기의 말을 하고 싶은 장애인 이용자들이 가장 편안하게 찾는 곳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또한 남의 말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제대로 집중해서 들어야 함을 의미한다. 상대의 표정, 눈빛, 태도, 손동작, 움직임 등을 하나하나 파악하면서 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말하는 상대의 생각과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읽어낼 수가 있다. 사람은 무언가 뜻을 이루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이 상대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기 말을 진정으로 잘 들어주고 자기를 존중해 주며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청득심(以聽得心)이라는 말이 있다. "상대를 존중하고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다"라는 뜻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 뭔가 하고 싶다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힘, 그것은 바로 경청하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을 'CEO'라고 부르지 말고 대신 '최고 경청자'라는 뜻의 '톱-리스너(Top-listener)'로 부를 길 원했다고 한다. 이 말은 리더의 덕목은 최고의 경청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주의 깊은 경청을 하기 위해서, 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나부터도 이제 말을 자제하고 상대방에 진정어린 귀 기울기를 시작할 때다.

매월 정답자 세 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독자퀴즈

- 2016년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창립 ○○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빈 칸에 알맞은 숫자는?
-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정치세력화를 위해 '2016장애인당사자총선연대'가 결성되어 장애인공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날짜는 언제일까요?

독자의견

새보람을 통해 장애인 관련 무료 신문을 매월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놓치지 말고 잘 읽어주시고, 유용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새보람이 되길 바랍니다. -유세호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소식이나 동향을 꾸준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편의시설 준수를 권하는 만화 캠페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재미있고 유익한 캠페인을 벌여주시고요. -김영필

응모요령

응모요령 : 우편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곳 (우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 이메일 : news@kappd.or.kr)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호 정답

당사자대회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당첨자

대구 달성군	임성노
경기 여주시	유세호
전북 전주시	김영필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인미의 모든 원료는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천연색소와 화장품 원료 기준에 적합하고 검증된 원료들만을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의 힘으로 스트레스와 유해물질들로 지치고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인미 비누는,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기법품, 담례품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천연물물렌징

천연바디워시

천연주방세제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쓰여집니다.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www.gabrielcenter.or.kr

리더스토리

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최남규 협회장

정치와 행정으로부터 도전받는 장애인



다시금 돌아온 정치의 계절에서 장애인의 정치참여에 대해 생각해본다. 민주주의 정치라 불리는 우리의 정치형태는 국민들이 대표를 선출하고 그 대표가 국민을 대신해 활동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대표를 선출하고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의해 국민의 삶은 많은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그간 장애인의 목소리를 듣고 장애인의 생각을 실현해 줄 대표를 간절히 원해왔다. 그러

나 선거기간에는 장애인에게 많은 지원을 해줄 것처럼 약속했던 그들이 사실 당선이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외면하고는 했다. 마치 사람이 아니라 표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이제 당사자단체의 역량과 조직이 완성되면서 장애인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와 행정도 장애인에게 도전받고 있다.

이젠 우리 스스로 역량과 능력을 갖춰 도전하는 장애인, 떳떳하고 당당한 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혁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장애인이 되어야 한다.

올 4월 13일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다. 그 지역의 특성이나 여론도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지지하는 후보자와 정당의 색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볼아야 할 것이 있

다. 그것은 장애인에 대한 대표성과 장애인의 목소리를 어떻게 실현해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장애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전해 당사자주의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복지라는 미명하에 정책과 예산을 마치 인심 쓰는 듯 사용하거나 복지예산을 흥정의 대상으로 보는 정치인과는 더 이상 함께 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복지와 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장애인당사자의 정치참여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는 비단 선거를 통한 정치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부가 있는 시·도청이나 시·군·구와 같은 기초단체에도 해당된다. 어떤 공무원은 말한다. 장애인 유형과 장애인 단체가 너무 많아 이해하고 기

역하기 힘들다고 말이다. 장애인 유형이나 단체가 처음부터 이리 복잡했던 것은 아니다. 정치적 이해와 행정적 편리를 위해 세분화 되어버린 것이다.

복잡하고 세분화 되어버리다 보니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의 의견과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가 사실 쉽지는 않다. 단체의 난립을 통해 장애인단체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도하고 이후엔 다시 유사중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이제는 줄 세우기 양상으로 장애인을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도전이다. 장애인은 한낱 도구가 아니다. 엄연한 주권과 참정권을 가진 국민이다.

내일의 권력과 주권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정치와 행정의 획책에 의해 흔들리고 사라져버리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더 공고히 더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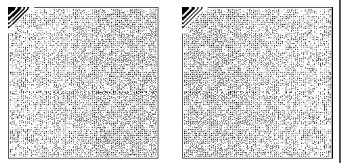
단하게 뭉쳐서 도전받아도 무너지지 않는, 도전하는 존재가 돼야 한다.

옛말에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했다. 우리 일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도 뭉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더욱더 장애인과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단체가 어떠한 지역색이나 학연지연이 아닌 오직 장애인당사자의 권리증진, 장애인정치세력화에 집중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원 여러분! 대동단결하여 정치적 위상을 재정립해 올해를 당사자주의 정치세력화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도전받는 장애인이 아니라 과감히 도전해, 스스로 목적달성을 위해 분연히 일어나 그 길을 열어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애계인사이드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손성도 관장



아침 출근길 복지관 로비는 이른 시간부터 삼삼오오 담소를 나누는 이용자로 가득하다. 반가운 인사와 미소로 시작하는 아침은 새해에도 변함없이 따뜻하다. 그래서 출근하는 길이 즐겁고 행복하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한 분 한 분 살아가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지내다보니, 나 스스로를 위한 바람보다 장애인을 위해 꿈꾸고 고민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누가 부탁하지 않아도 이른

새벽부터 복지관 주변 쓰레기를 치우는 N씨의 소원은 일 자리를 갖는 것이다. 편마비로 종일업무를 수행하기 힘들 텐데도 마주칠 때면 일자리 이야기를 꺼내곤 한다. 그분의 소원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대전광역시와 유성구의 협조를 받아 장애인일자리사업 운영권을 얻어왔다. 덕분에 11명의 장애인이 복지관과 협력기관에서 주 15시간의 근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한 명 한 명의 밝은 미소가 오늘을 살아가는 기쁨이 된다.

또 나는 복지관에 장애아동을 데리고 치료를 받으러 오는 부모님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가 많다. 그 때 부

모들은 멋진 말이나 큰 위로가 아니라, 상황과 심정에 대한 공감만으로도 눈물을 보인다. 자식 앞에서는 늘 강한 부모님의 모습이지만 속마음을 꺼내면 한없이 약해진 모습에 마음이 아픈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 복지관은 장애아동과 부모가 함께 믿고 의지하며 힐링할 수 있도록 평소 여행이 어려운 장애가족을 위해 1박2일 가족여행을 진행하였다. 또한 서로 격려하며 단단해질 수 있도록 복지관 부모회를 결성하여 의견을 나뉘 건의하면 복지관 운영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장애청소년 및 장애인가정의 자녀들의 학업유지 및 증진을 위해 뜻있는

개인과 기관, 단체가 모여 '희망드림 장학단'을 구성하고자 한다. 청소년 시기의 배움은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난이나 자신의 상황에 의해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많은 개인과 단체가 기꺼이 동참하여 손을 내밀 때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가 진심으로 감사하다.

지난해는 정월대보름 척사대회를 시작으로 벚꽃이 만개한 봄날 건강걷기대회, 복지관 개관 10주년 기념식, 추억을 만드는 장애인 테마여행, 사랑이 가득한 장애인 가족여행, 청소년골프단의 4번에 걸친 골프대회 참석, 사랑나눔대행진, 새롭게 창단된 장애청소년

합창단의 고운 화음을 전하는 공연에 절로 행복해지는 한해였다.

2016! 丙申年 새해에는, 일을 통해 보람을 찾아가는 장애인, 매일매일 알찬 프로그램을 통해 영글게 성장해가는 방과후 교실 아동,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머니와 함께 재활치료를 받으러 오는 아동, 수영을 통해 힘차게 발차기하며 앞으로 쪽쪽 나아가는 청소년, 복지관에 오시는 것만으로 큰 행복이라는 어르신 등 모든 분들을 위해 운영의 내실을 견고히 다져가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장애인 한 분 한 분이 현실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꿈을 실현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전 직원과 함께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오늘도 나는, 그리고 우리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의 꿈을 향해 걸어간다.

2016! 장애인의 꿈을 향해 걷다

201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희망의 동반자, 사회변혁의 주역이 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지장협

1986-2016

사진작가 : 임성노

촬영일자 : 2016년1월1일, 오전 7:39:56

촬영장소 : 부산 청산포

